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39, pp.127-171
<https://doi.org/10.29212/mh.2026..139.12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4

마사다 전투와 로마 정복: 저항과 지배의 상징적 미학

김상엽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조교수

- 목 차**
1. 서론: 마사다 포위전의 역사적 배경과 이중적 의미
 2. 문학적·이데올로기적 기반: 요세푸스, 로마-유대 관계, 초기 역사서술
 3. 고고학과 집단지성: 야딘의 마사다 발굴, 시온주의적 재전유, 20세기 후반의 비판적 논쟁
 4. 로마의 단기 공성전과 지배의 미학: 최신 고고학이 복원한 제국의 역지력
 5. 결론: 상징의 교차점으로서 마사다

초록 본 연구는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의 종결지인 마사다 포위전(서기 73년)이 지니는 이중적 상징성—유대인의 영웅적 저항과 로마 제국의 압도적 지배력—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다각도로 분석한다. 첫째, 당대 유일한 문헌 사료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분석하여, 마사다 서사가 로마 제국의 무적함을 선전하고 유대 극단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고도로 기획된 수사적·변증적 산물이었음을 밝힌다. 둘째, 1960년대 이가엘 야딘의 발굴을 중심으로 마사다가 신생 국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적 건국 신화와 집단 기억으로 제도화된 과정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나흐만 벤-예후다 등 비판적 학자들의 이데올로기 해체 작업을 고찰한다. 셋째, 2024년 최신 3D 모델링 및 원격 탐사 기술을 활용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사다 공성전이 수년에 걸친 장기 방어전이 아니라 단 11-16일 만에 포위망이 완성된 로마군의 단기 압살 작전이었음을 실증적으로 조명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마사다가 고정된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고대의 냉혹한 정치·군사적 현실과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최신 과학적 실증주의가 겹겹이 중첩된 ‘다층적 의미의 팔림프세스트’임을 규명한다.

주제어: 마사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집단 기억, 시온주의, 이가엘 야딘

1. 서론: 마사다 포위전의 역사적 배경과 이중적 의미

제1차 유대-로마 전쟁(서기 66-73년)은 종교적 갈등, 로마 제국의 가혹한 세금 징수,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및 정치적 자율성에 대한 로마의 억압적인 무시 등 폭발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발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전쟁의 초기 국면에서는 유대 반란군의 뜨거운 열정이 로마 주둔군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세켈(שקל ישראל)과 거룩한 예루살렘(ירושלים קדושה)”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진 반란 화폐를 주조하는 등 일련의 승리를 이끌며 민족 해방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¹⁾ 그러나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되고 유대교의 중심인 제2성전이 파괴되면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항은 사실상 종결을 맞이했다.²⁾ 이후

-
- 1) Y. Meshorer, *A Treasury of Jewish Coins: From the Persian Period to Bar Kochba* (Jerusalem: Yad Ben-Zvi Press, 2001), pp. 115-121; M. Goodman,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A.D. 66-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15-19. 반란의 진짜 원인이 로마의 억압 때문만이 아니라, 로마에 협력하며 부를 축적하던 유대인 지배층(대제사장 등)의 무능과 민중의 분노 폭발 때문이었음을 파헤쳤다; S. Mason, *A History of the Jewish War, A.D. 66-7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280-285. 유대인 전체가 로마에 맞서 하나로 뭉친 적이 결코 없었으며, 반란이 얼마나 여러 계파로 파편화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하였다; D. Goodblatt, *Elements of Ancient Jewish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45-48. 전쟁의 물질적 원인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다(Judah)’라는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는지(즉, 극단적 민족주의의 사상적 기원)를 설명했다.
- 2) Josephus, *De Bello Judaico*, 4.9.4-5; Mason, *A History of the Jewish War, A.D. 66-74*, pp.288-292. 서기 66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파벌 간의 유혈 사태와, 메나헴이 처형당한 뒤 엘야자르 벤 야이르가 마사다로 도주하는 과정이 범죄 수사극처럼 매우 상세하게 기술했다; R. A. Horsley and J. S. Hanson, *Bandits, Prophets, and Messiahs: Popular Movements at the Time of*

소규모의 저항 세력들, 그중에서도 특히 마사다 요새에 거주하던 시카리파(Sicarii)만이 고립된 요새에서 외로운 저항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들의 마지막 항전은 서기 72-73년에 벌어진 마사다 포위전으로 극적인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는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의 비극적인 결말임과 동시에 제국에 대한 도전과 절대적 지배라는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담아낸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본 논문은 마사다 포위전이 유대 민중의 자발적인 저항 정신과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공학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을 동시에 드러낸 복합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논증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건국 신화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이러한 이중적 분석 틀 속에서 마사다의 수비대는 로마의 억압에 맞서 굴복 대신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순교적 저항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 반면 로마 제국은 대규모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난 이후의 소규모 반란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학 기술과 심리적 전술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요새를 제압함으로써 제국의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통제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전하는 유일한 문헌사료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가 서기 75년경에 집필한 『유대 전쟁사』이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사령관 루키우스 플라비우스 실바는 약 960명의 시카리파 무리와 그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마사다의 험준한 고원 요새를 철저히 포위했다.³⁾ 그는 로마군이 “수개월에 걸쳐” 포위벽과 거대한 흙더미로 이루어진 공성 경사로를 건설했으며, 마침내 서기 73년 봄 서쪽 경사

Jesu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5), pp. 208-211; Goodman,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A.D. 66-70*, pp.152-155.

3) Josephus, *De Bello Judaico*, 7.8.5.

면을 돌파해 냈다고 기록했다.⁴⁾ 그러나 로마군이 요새 내부로 진입했을 때, 그곳은 일곱 명의 생존자만을 제외한 모든 거주민이 집단 자살을 선택한 “죽음의 성채”로 변모해 있었다.⁵⁾ 요세푸스는 시카리파의 이러한 비극적 최후를 단순한 항복이 아닌 고귀한 자결로 묘사하며 서사적 비장미를 더했다.⁶⁾ 고대 후기에서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기까지 역사가들은 이러한 요세푸스의 극적인 서술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했으며, 이 사건을 성서적 순교의

-
- 4) H. Ashkenazi, & G. D. Stiebel, et al., “The Roman Siege System of Masada: a 3D Computerized Analysis of a Conflict Landscape”, *Journal of Roman Archaeology* 37, no. 1 (2024), pp.215-240. 2024년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팀은 드론과 고해상도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로마군의 포위벽과 공성 시스템 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로마군의 포위전이 장기전이 아닌 초단기전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I. A. Richmond, “The Roman Siege-Works of Masada, Israel”,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52 (1962), pp.142-155; G. Davies, “The Roman Siege Works at Masada”, *Journal of Roman Studies* 101 (2011), pp.60-65; B. Z. Kedar, *Looking Twice at the Land of Israel: Aerial Photographs of 1917-1918 and 1987-91* (Jerusalem: Yad Izhak Ben-Zvi, 1991), pp.110-115.
- 5) Josephus, *De Bello Judaico*, 4.9.4; N.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5), pp.70-75. 단순히 집단 자살이라는 사실 자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집합 기억이 이 참혹한 대량 자살극(극단적 순교)을 어떻게 현대의 민족주의적 영웅 서사로 탈바꿈시켰는지 그 ‘신화화(Mythmaking)’ 과정을 비판적으로 짚어내는 학술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Y.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 60-72; B. Schwartz, Y. Zerubavel, and B. M. Barnett, “The Recovery of Masada: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The Sociological Quarterly* 27, no. 2 (1986), pp. 147-164; N. Ben-Yehuda, *Sacrificing Truth: Archaeology and the Myth of Masada* (Amherst: Humanity Books, 2002), pp. 40-45.
- 6) Josephus, *De Bello Judaico*, 4.9.5 요세푸스는 이 대목에서 마사다 요새에 고립되었던 시카리파 수비대의 최후를 로마에 대한 비겁한 항복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자결로 묘사하고 있다; E. Luttwak, *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 From the First Century A.D. to the Thir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p.3-4; A. M. Eckstein, “Josephus and the Mute Stones: The Siege of Masada”, *The Public Historian* 29, no. 1 (2007), pp.119-122.

위대한 영웅담으로 재해석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이자 전(前) 참모총장이었던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이 마사다의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⁷⁾ 그는 발굴을 통해 로마군의 공성 경사로 흔적, 포위 진지, 저장 창고, 헤롯왕의 궁전, 그리고 종교의식 공간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유적들을 발견해 냈다.⁸⁾ 야딘의 이러한 발굴 결과는 표면적으로 요세푸스의 기록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대대적인 언론 보도와 대중적 홍보를 통해 마사다는 시온주의적 유대 영웅주의의 핵심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는 마사다가 청년운동의 의식 및 국가 주요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민족정체성의 중심으로 기능했다.⁹⁾

7) Y. Yadin,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 (New York: Random House, 1966), pp.10-25. 1960년대 이가엘 야딘이 수많은 자원 봉사자와 함께 마사다 유적의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주도하고 기획했음을 밝혔다.

8) Yadin,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 pp.30-42. 1960년대 이스라엘 대중과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으며, 2천 년 전 잿더미 속에서 죽어간 '가족'들의 흔적을 보며 홀로코스트의 상처와 이스라엘 건국의 정당성을 무의식적으로 연결하도록 유도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문학적인 수사가 돋보였다.

9)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3-15 이스라엘 건국 초기, 마사다가 단순히 과거의 유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마사다가 당시 청년운동의 각종 의식(의례)이나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소비되었음을 증명했다; Schwartz, Zerubavel, & Barnett, "The Recovery of Masada: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pp.147-164 제루바벨과 슈워츠는 랍비 유대교가 지난 2천 년 동안 마사다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기록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전통 유대교는 로마에 맞서 칼을 들고 자결한 시카리파를 이단으로 여겼고, 대신 율법을 지키며 순교한 랍비들을 영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E. Hobsbawm,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in *The Invention of Tradition*, ed. E. Hobsbawm and T. Rang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1-14; M.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ed. and trans. L.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37-40; A. Shapira, *Land and Power: The Zionist Resort to Force, 1881-19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312-318.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학계의 흐름은 변화했다. 나흐만 벤-예후다(Nachman Ben-Yehuda)와 야엘 제루바벨(Yael Zerubavel)과 같은 비판적 학자들은 맹목적으로 수용되던 “마사다 신화”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벤-예후다는 시카리파가 실제로는 엔게디(En Gedi)에서 동족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한 극단주의 자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야딘이 발굴 과정에서 발견한 유해를 사령관의 가족으로 성급하게 규정하는 등, 유적을 철저히 이념적 서사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¹⁰⁾ 제루바벨과 슈바르츠(Schwartz)는 이스라엘의 집단 기억이 어떻게 마사다 서사에서 역사적 복잡성과 시카리파의 내부 폭력을 교묘하게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저항의 상징으로만 재형성했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했다.¹¹⁾ 이들의 학술적 비평은 순교와 광기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흐리는 방식으로 현대의 신화가 고대의 복잡한 역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여기에 더해, 최신 과학 기술을 활용한 고고학 연구는 마사다에 관한 학계의 이해를 한층 혁신적으로 변화

10)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50-78. 이스라엘 사회학자 벤-예후다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스라엘 사회(특히 세속적 시온주의 청년 운동과 군부대)에서 마사다 서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영웅 신화’로 구축되었는지를 방대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추적했다; Y.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192-213; Schwartz, Zerubavel, & Barnett, “The Recovery of Masada: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pp.153-158.

11) Schwartz, Zerubavel, & Barnett, *The Recovery of Masada: History, Memory and National Identity*, pp. 25-48. 마사다가 문학적 상징(람단의 시)에서 ‘신체적 의례(Ritual)’로 넘어가는 과정을 추적했다. 특히 청년 운동가들이 마사다를 직접 등반하며 겪는 고통을 ‘민족적 구원 과 연결하는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해부했다; P. Nora,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 (1989), pp.7-15; M. Halbwachs, *On Collective Memory*, trans. L.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167-182; B. G. Trigger, “Alternative Archaeologies: Nationalist, Colonialist, Imperialist”, *Man* 19, no. 3 (1984), pp.355-370.

시키고 있다. 2024년 텔아비브 대학교의 연구팀은 최첨단 드론과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로마군의 방대한 포위벽이 6,000에서 8,000명에 달하는 막강한 병력에 의해 단 11-16일 만에 신속하게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¹²⁾ 이는 요세푸스와 야딘에 의해 정립된 장기 포위전이라는 기존의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오히려 실제 마사다 공략은 고작 두 달 이내에 종결된, 고도로 집중된 단기 작전이었다는 실증적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러한 로마군의 가공할 효율성은 에드워드 루트왁(Edward Luttwak)의 전략적 해석—즉, 로마 제국은 변방 주변부의 작은 반란조차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는 분석—과도 완벽하게 일치한다.¹³⁾ 요세푸스의 고대 기록, 이가엘 야딘의 고고학적 확인 작업,

12) Ashkenazi, & Stiebel, et al., “The Roman Siege System of Masada: a 3D Computerized Analysis of a Conflict Landscape”, pp.236-238. 요세푸스의 문학적 수사나 이가엘 야딘의 민족주의적 열망이 만들어낸 ‘수년에 걸친 영웅적 항전’이라는 서사를 산산조각 내고, 마사다 전투가 사실은 “저항의 지를 단숨에 꺾어버리기 위해 로마 제국이 기획한 고도의 단기 압살 작전(군사 퍼포먼스)”이었음을 완벽하게 입증했다. B. Arubas and H. Goldfus, “The Masada Siege System: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Earthworks,” in *The Roman and Byzantine Army in the East*, ed. E. Dąbrowa (Kraków: Jagiellonian University, 1995), pp.251-259; Davies, “The Roman Siege Works at Masada”, pp.60-65; D. B. Campbell, “Blind Faith: The Roman Siege of Masada”, *Ancient Warfare* 4, no. 2 (2010), pp.40-42.

13) Luttwak, *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 From the First Century A.D. to the Third*, pp.195-200. 마사다 전투를 단순히 ‘압도적인 병력으로 이긴 전투’로 보는 1차원적인 시각을 넘어, ‘제국의 권력과 지배력을 각인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이데올로기적 퍼포먼스’로 해석을 확장시켰다; S. P. Mattern, *Rome and the Enemy: Imperial Strategy in the Princip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115-122; E. Dąbrowa, *Legio X Fretensis: A Prosopographical Study of its Officers (I-III c. A.D.)* (Stuttgart: Franz Steiner, 1993), pp.15-21; J. Roth, “The Length of the Siege of Masada”, *Scripta Classica Israelica* 14 (1995), pp.105-108.

포스트 시온주의 학자들의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최신 기술 기반의 법의학적 재분석 등은 각각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고유한 해석의 층위를 겹겹이 형성하고 있다. 이는 곧 고대 문헌의 순교 서사에서 시작하여 현대의 국가 정체성 긍정으로, 신화에 대한 해체적 비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군수 물류에 대한 법의학적 재해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동적인 흐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복합적인 흐름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문헌적 및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요세푸스의 본문을 면밀히 분석하며, 요세푸스의 본문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를 유대-로마 관계의 거시적 맥락 속에서 고찰하고 초기 학계가 이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탐구한다. 둘째는 고고학과 집단지성으로 야딘의 대대적인 발굴 작업, 마사다의 시온주의적 재해석 과정, 그리고 20세기 후반 벤-에후다, 제루바벨 등에 의해 촉발된 비판적 논쟁을 다룬다. 셋째는 로마의 군사 운용에 관한 재조명으로 최근의 첨단 고고학적 발견을 종합하여 로마 제국의 실제 권력, 포위전의 실제 기간과 이데올로기적 목적, 그리고 전쟁 종결 이후 제국이 지배력을 어떻게 재확인했는지를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이 서론은 마사다가 단순히 낭만적인 영웅적 최후의 저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반란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한 결정적 군사 사건이었으며, 이후 시대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신화로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튼튼한 서사적 토대를 준비한다. 이 논문은 고대의 냉혹한 정치-군사적 현실과 후대의 이념적 해석 층위를 함께 탐색함으로써, 마사다를 고대의 저항과 현대의 상징성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교차점으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한다.

2. 문학적·이데올로기적 기반: 요세푸스, 로마-유대 관계, 초기 역사서술

마사다의 극적인 이야기는 차가운 고고학적 발굴 현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서기 75년에 집필한 『유대 전쟁사』(De Bello Judaico)라는 텍스트에서 비로소 출발한다. 마사다 공성전에 대한 당대의 유일한 문헌 사료인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 사건의 단순한 기록자를 넘어 사실상 서사의 창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서술은 이후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파생시키고 민족적 신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어왔다. 마사다가 어떻게 유대인의 순교 상징이자 동시에 로마의 승리 서사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요세푸스가 작품 속에 치밀하게 구축한 이데올로기적, 수사적, 그리고 역사적 기반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세푸스(본명: Yosef Ben Mattityahu)는 유대의 유력한 제사장 계급 출신으로, 제1차 유대-로마 전쟁 초기에는 갈릴리 지역을 책임지는 군사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서기 67년 요타파타 전투에서 로마군에 포로로 잡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으나,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 등극을 예언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극적으로 목숨을 부지했다.¹⁴⁾ 이후 그는 플라비우스 왕조

14) Goodman,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A.D. 66-70*, pp.38-41. 마사다 포위전에 대한 요세푸스의 극적인 서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가 '반란군을 이끌던 유대 귀족'에서 '로마 황제의 후원을 받는 친로마 지식인'으로 전향한 매우

의 강력한 후원을 받게 되었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귀화하여 로마에 머물며 로마 독자들을 위한 그리스어 역사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란군 출신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라는 그의 이중적 정체성은 『유대 전쟁사』 텍스트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후대 역사가들의 해석에 깊은 복잡성을 더하는 요인이 된다. 요세푸스의 진정한 충성심과 집필 의도에 대해서는 현대 학계에서도 오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의 서술은 억압받는 유대 민중에 대한 깊은 연민과, 전쟁이라는 파국을 제공한 급진적 반란 세력—특히 열심당(Zealots)과 시카리(Sicarii)—에 대한 신랄한 비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¹⁵⁾

저서 제7권에서 그는 마사다의 포위 상황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하며, 로마의 노예로 굴욕적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결을 선택한 960명 남녀노소의 최후를 ‘고귀한 죽음’으로 엄숙하게 기념한다. 그는 이 전대미문의 집단 자결을 이끈 중심 인물로 시카리 지도자 엘아자르 벤 야이르(Eleazar ben Ya'ir)를 전면에 내세우며,

복잡한 이중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Horsley, *Jesus and the Spiral of Violence: Popular Jewish Resistance in Roman Palestine*, pp.43-47; T. Rajak,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London: Duckworth, 1983), pp.122-128; Mason, *A History of the Jewish War, A.D. 66-74*, pp.250-255.

15) Rajak,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pp.100-105. 마사다 전투에 대한 당대의 유일한 기록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가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작가 개인의 복잡한 정치적 입장(로마의 후원을 받는 유대인 지식인)과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투영된 수사학적 텍스트임을 각인시켰다; S. J. D. Cohen, “Masada: Literary Tradition, Archaeological Remains, and the Credibility of Josephus”, *Journal of Jewish Studies* 33, no. 1-2 (1982), pp.385-405; P. Bilde, *Flavius Josephus between Jerusalem and Rome: His Life, his Works, and their Importance* (Sheffield: JSOT Press, 1988), pp.79-83; P. Vidal-Naquet, *The Jews: History, Memory, and the Present*, trans. D. Am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40-45.

그의 비장한 반로마 연설을 전체 서사의 핵심 장면으로 배치하여 극적 긴장감을 끌어올린다.¹⁶⁾ 그러나 요세푸스가 구축한 이 도덕적 서사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마사다에서 엘아자르의 연설은 더없이 영웅적인 저항의 목소리처럼 보이지만, 요세푸스는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서는 시카리파를 무고한 동족 유대인을 학살하고 거룩한 성지를 더럽힌 잔혹한 극단주의자로 매도하며 일관성을 잃는다.¹⁷⁾ 이러한 서술의 노골적인 이중성에 대해 테사 라작(Tessa Rajak)과 마틴 굿맨(Martin Goodman) 같은 권위 있는 학자들은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그들은 요세푸스가 마사다 수비대의 마지막 심리적 결단 자체는 존중하고 기리면서, 동시에 그들을 정통 유대교의 흐름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격리하려 의도했다고 분석한다.¹⁸⁾ 그 결과 마사다는 후대 독자들에게 비극적 존경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극단적 반란이 낳은 파국적 교훈이라는 이중화된 장소로 남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요세푸스의 작품은 로마 황제의 권력과 정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강화하는 정치적 선전물(propaganda)의 성격도 매우 강하게 띠고 있다. 플라비우스 왕조의 든든한 정치적, 재정적 후원 아래 집필된 『유대 전쟁사』는 본질적으로 로마 군단의 무적의

16) Josephus, *De Bello Judaico*, 7.8.6-7; D. J. Ladouceur, "Masada: A Consideration of the Literary Evidence",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21, no. 3 (1980), pp.245-260; L. H. Feldman, *Josephu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135-140.

17) Josephus, *De Bello Judaico*, 4.7.2.; Goodman,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pp.52-53. 마사다 수비대(시카리파)를 맹목적인 '순교자' 나 '민족 영웅'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이 유대 사회 내부에서 일으켰던 폭력적 분파주의의 실상을 폭로함으로써, 마사다 서사가 역사적 팩트라기보다는 고도로 계산된 '도덕적·수사학적 구성물'임을 입증했다.

18) Rajak,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pp.218-222; Goodman,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A.D. 66-70*, pp.14-19.

승리를 찬양하고, 유대인의 반란을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필연적이고 정의롭게 진압되어야만 하는 사건’으로 정당화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마사다는 반란의 진압을 알리는 마지막 웅장한 장면으로서 특별한 서사적 위치를 차지하며, 로마 제국의 전지전능함과 불가항력적인 힘을 강조하는 상징적 승리로 묘사된다. 요세푸스는 엘아자르의 입을 빌린 연설에서 ‘명예는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헬레니즘-스토아 철학적 메시지를 유려하게 담아낸다.²⁰⁾ 하지만 스티브 메이슨(Steve Mason)과 조너선 프라이스(Jonathan Price) 같은 비판적 학자들은, 이 연설이 단순한 철학적 미사여구나 영웅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압도적인 로마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 요세푸스가 치밀하게 고안한 수사적 장치라고 분석한다.²¹⁾ 메이슨의 주장에 따르면, 요세푸스는 이 비장한 연설을 통해 오히려 로마 제국의 피할 수 없는 심리적 지배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려 했다는

19) J. J. Price, *Jerusalem Under Siege: The Collapse of the Jewish State, 66-70 C.E.* (Leiden: Brill, 1992), pp.1-13. 프라이스는 요세푸스를 로마 황실의 ‘클라이언트 역사가(Client Historian)’로 정의했다. 그는 요세푸스가 로마의 승리를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글을 써야 했으며, 따라서 유대 전쟁의 전개를 로마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아닌, 광기로 가득 찬 유대인 반란군으로부터 로마가 질서를 회복한 ‘정의로운 진압’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T. Rajak,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2002), pp.174-184.

20) Josephus, *De Bello Judaico*, 7.8.6; M. Hengel, *The Zealots: Investigations into the Jewish Freedom Movement in the Period from Herod I until 70 A.D.*, trans. D. Smith (Edinburgh: T&T Clark, 1989), pp.90-94; A. J. Droge and J. D. Tabor, *A Noble Death: Suicide and Martyrdom Among Christians and Jews in Antiquity*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2), pp.85-89; G. M. Paul, “Urbs Capta: Sketch of an Ancient Literary Motif”, *Classical Views* 26, no. 2 (1982), pp.144-148.

21) Mason, *A History of the Jewish War, A.D. 66-74*, pp.545-551; Price, *Jerusalem Under Siege: The Collapse of the Jewish State, 66-70 C.E.*, pp.1-13, 185-188.

것이다. 즉, 마사다의 수비대는 맹목적인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승리와 통치를 이성적으로 완벽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한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치밀한 논리다. 이처럼 마사다 에피소드는 고도의 이중적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대 독자들에게는 민족적 아픔과 도덕적 복잡성을 지닌 비극적인 결말로 다가가지만, 로마 독자들에게는 신의 섭리와 가호를 입은 정의로운 제국이 거둔 완벽한 승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마사다의 굳건한 성벽은 로마의 공성병기에 의해 단지 물리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반란군의 도덕적 패배를 상징하며 무너졌고, 로마는 단순한 군사적 압승을 넘어 도덕적, 우주적 우위까지 확고히 확보한 것으로 포장된다.

고대 후기와 중세 초기를 거치며 마사다의 이야기는 오로지 요세푸스가 제공한 제한된 텍스트의 틀 안에서만 전승되었다. 기독교 역사가인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는 자신의 저작에서 『유대 전쟁사』를 언급할 때, 유대인의 저항을 기리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직 유대 민족에 대한 기독교적 신의 엄중한 심판을 강조하는 도구로만 활용했다.²²⁾ 중세 유대 전통 내부에서도 마사다는 오랫동안 금기시되거나 거의 주목받지 못했으며, 대신 디아스포라의 현실과 신적 섭리에 대한 랍비 중심의 탈무드적 해석이 유대인 삶의 중심이 되었다. 잊혔던 이 이야기는 고대 고전 텍스트들이 르네상스 시기에 대거 재발굴되면서 비로소 유럽 사회에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 요세푸스의 저작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자료로 빈번히 인용되었으며, 주로 기독교가 구약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역사적 보조 자료

22)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3.5.3.

로 널리 활용되었다.²³⁾ 그러나 합리주의가 태동한 계몽시대 초기에 접어들면서, 요세푸스의 극적인 서술을 맹신하지 않고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그가 남긴 세밀한 묘사들을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점차 고도의 수사적·문학적 장치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근대적인 사료 비판적 접근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²⁴⁾ 20세기 초, 마사다 유적이 실제로 발굴되면서 요세푸스 기록의 신뢰성을 둘러싼 학계의 뜨거운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야딘(Yigael Yadin)과 같은 성서 고고학자들은 그의 기록을 발굴된 물증으로 완벽히 확인하고 증명하려 애썼지만, 모턴 스미스(Morton Smith)와 셰이 코헨(Shaye Cohen) 같은 텍스트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문학적 과장과 윤색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²⁵⁾ 특히 코헨은 마사다

23) Feldman, *Josephus'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p.198-201. 마사다 수비대의 지도자 엘아자르가 남겼다는 비장한 '집단 자결 촉구 연설'이 실제 역사적 팩트라기보다는 요세푸스가 이방인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영혼 불멸 사상(Immortality of the soul)'과 스토아 철학의 '고귀한 죽음' 모티프를 투영하여 정교하게 빚어낸 문학적 창작물임을 증명했다; G. E. Sterling, *Historiography and Self-Definition: Josephos, Luke-Acts, and Apologetic Historiography* (Leiden: Brill, 1992), pp.290-295; P. Spilsbury, *The Image of the Jew in Flavius Josephus' Paraphrase of the Bible* (Tübingen: Mohr Siebeck, 1998), pp.200-205; J. W. van Henten, *The Maccabean Martyrs as Saviours of the Jewish People: A Study of 2 and 4 Maccabees* (Leiden: Brill, 1997), pp.210-215.

24)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14-16. 텍스트에 기록된 시카리파(Sicarii)의 복잡하고 어두운 진실은 삭제되고, 오직 "조국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한 소수의 영웅적인 유대인 전사들"이라는 왜곡되고 낭만화된 이미지만이 집단 기억 속에 남게 된 과정을 지적했다; O. Almog, *The Sabra: The Creation of the New Jew*, trans. H. Watz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pp.254-258; T. Segev, *The Seventh Million: The Israelis and the Holocaust*, trans. H. Watzman (New York: Hill and Wang, 1993), pp.428-432; Shapira, *Land and Power: The Zionist Resort to Force, 1881-1948*, pp.310-314.

최후의 순간에 엘아자르가 행했다는 장엄한 연설이, 당시 헬레니즘 문학의 수사적 전통에 기반하여 요세푸스가 극적 효과를 위해 창작해 낸 허구일 뿐,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대화가 아니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²⁶⁾

결과적으로 현대 학자들은 이 복잡한 마사다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여전히 분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요세푸스가 표면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것을 자유를 향한 영광스러운 저항의 결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의 도덕적 우위와 저항의 무의미함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문학적 구성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벤-예후다는 요세푸스의 이야기가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시대마다 당대의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소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카리파를 고귀한 순교자가 아니라 폭력적이고 맹목적

25) M. Smith, *Palestinian Parties and Politics that Shaped the Old Test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pp.244-247. 율법에 대한 ‘광신적 열심(Zeal)’이라는 개념이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려는 반대파(친그리스파 귀족 등)를 숙청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자 파벌주의의 산물’이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Cohen, *From the Maccabees to the Mishnah*, pp.143-148; S. Schwartz, *Imperialism and Jewish Society: 200 B.C.E. to 640 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49-54; P. R. Davies,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JSOT Press, 1992), pp.74-79.

26) Cohen, “Masada: Literary Tradition, Archaeological Remains, and the Credibility of Josephus”, pp.385-393 요세푸스는 960명이 집단 자결했다고 기록했지만, 야딘의 대규모 발굴팀이 마사다 전체를 뒤져서 찾아낸 유골은 고작 28구(동굴 25구 + 궁전 3구)에 불과했습니다. 코헨은 이 거대한 수치적 모순을 지적하며, 집단 자결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 많은 시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J. Zias, D. Segal, and O. Lerna, “The Human Skeletal Remains from the Northern Cave at Masada—A Second Look,” *Israel Exploration Journal* 48, no. 1/2 (1998), pp.76-90; J.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pp.165-171; Ben-Yehuda, *Sacrificing Truth: Archaeology and the Myth of Masada*, pp.150-156.

인 광신도로 규정하며, 요세푸스는 자신의 복잡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들을 미화함과 동시에 비판하려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졌다고 통찰한다.²⁷⁾ 이러한 요세푸스 특유의 이중적 묘사는 훗날 이스라엘 건국 이후의 강력한 민족주의 담론 속에서 마사다가 대체 불가능한 국가적, 상징적 자산으로 화려하게 변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²⁸⁾ 결국 요세푸스가 축조한 문헌 속의 마사다는 단순한 실증적 사실에 기반한 건조한 역사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이념적인 거대한 극장(theater)과 같다. 그곳은 인간의 처절한 저항, 자유를 향한 자율성, 복수의 열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후의 허무라는 보편적인 테마들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무대인 것이다. 이 이야기가 2천 년의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현대인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진정한 이유는 그 기록의 완벽한 사실성보다는, 인간 본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서사적 힘에 기인한다. 테사라작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를 파편화된 과거의 나열인 ‘단순한 역사’로 쓴 것이 아니라, 당대와 후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를 잉태한 텍스트”로 정교하게 직조해 낸 것이다.²⁹⁾

27)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20-42.

28)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45-68.

29) Rajak,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p.118.

3. 고고학과 집단지성: 야딘의 마사다 발굴, 시온주의적 재전유, 20세기 후반의 비판적 논쟁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가 수백 년 동안 마사다 이야기의 문학적이고 사상적인 핵심을 보존해 왔다면, 20세기의 현대 고고학은 그 잠들어 있던 물질적 흔적을 태양 아래로 발굴해 내어, 낡은 양피지 위 텍스트에 불과하던 이야기를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국가적 기념물’로 탈바꿈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거대하고 역사적인 전환의 한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 이가엘 야딘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장군이자 뛰어난 고고학자,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공 지식인으로서, 1963년부터 1965년까지 이어진 대대적인 마사다 발굴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신생 국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열광시켰다. 그는 이미 유대인들의 국민적 상상 속에 어렴풋이 자리 잡고 있던 순교와 저항의 신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유적으로 화려하게 구현해 냈다.³⁰⁾ 야딘의 발굴 작업과 이를 국가적으로 수용해 나간 방식은, 객관적 과학으로 여겨지는 ‘고고학’이 국가의 ‘이념’과 어떻게 밀접하게 교차하며, 역사의 기억이 단순히 땅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성’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대 역사학의 핵심 사례로 평가받는다.

30) Yadin,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 p.15. 야딘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어떤 정신적, 국가적 동기로 마사다 발굴에 임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A. Elon, *The Israelis: Founders and S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pp.279-283.

당시 야딘은 학문적인 고고학 담론과 대중적인 국가 내러티브를 동시에 주도하고 형성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국방군(IDF)의 최고 권력인 참모총장을 역임한 검증된 군사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저명한 고고학자 엘르아자르 수케닉(Eliezar Sukenik)의 아들로써 학문적 정통성까지 겸비한 인물이었다. 무기를 든 손으로 흙을 파내어 조상의 뼈를 찾는다는 이른바 ‘군인-학자(Soldier-Scholar)’라는 시온주의의 완벽한 이상을 온몸으로 구현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가 기획한 마사다 발굴은 단순한 학자들의 연구가 아니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국내외 자원봉사자들—그중 절대다수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무장한 청년운동 단원들이었다—이 힘준한 사막으로 몰려들어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며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발굴 현장은 건조한 학문적 작업장이라기보다는 신생 국가의 결속을 다지는 일종의 거대한 ‘시민 의례(civic ritual)’로 강력하게 작동했다.³¹⁾ 야딘이 이끄는 이 거대 프로젝트의 목표는 너무나도 투명하고 분명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요세푸스의 기록을 최신 고고학의 권위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입증하고, 고대 유대 국가와 현대 이스라엘 국가 사이의 끊어지지 않는 역사적 연속성을 천명하며, 홀로코스트의 상처를 극복할 민족 저항의 빛나는 원형 서사를 창조해내는 것이었다. 그의 주요 저서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31) N. A. Silberman, *Digging for God and Country: Exploration, Archaeology, and the Secret Struggle for the Holy Land, 1799-1917* (New York: Knopf, 1982), p.223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학자들은 성경 속 지명을 팔레스타인 지도 위에 고정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지배력을 정당화했다. 이스라엘 고고학계는 바로 이 ‘유럽식 식민지 고고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하여 아랍인들의 역사를 지우고 유대인의 영토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했다. N. A. Silberman, *Between Past and Present: Archaeology, Ideology, and Nationalism in the Modern Middle East* (New York: Henry Holt, 1989), pp.87-92; N. Abu El-Haj, *Facts on the Ground: Archaeological Practice and Territorial Self-Fashioning in Israeli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pp.22-28.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1966)에서, 야딘은 자신이 이룩한 고고학적 발견과 요세푸스의 극적인 이야기 사이의 완벽하고도 극적인 일치를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는 발굴 현장에서 마지막 순간 자살 순서를 정하기 위한 제비뽑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 적힌 나무 조각들(ostracons), 장기적인 포위를 넉넉히 버틸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식량 저장 시설들, 그리고 로마군의 무자비한 공격 경로로 사용된 경사로와 그들을 옥죄었던 로마 군영의 선명한 흔적 등을 발견했다고 대대적으로 주장했다.³²⁾ 야딘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은 중립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오직 고대의 영웅적 서사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치밀한 방향으로 배열되고 제시되었다.

야딘의 역사적 시각 속에서 마사다는 서양 문명 방어 의 상징인 그리스의 테르모필레(스파르타 300 용사의 영웅적 전투 현장)의 완벽한 이스라엘 버전이었으며, 그곳에서 산화한 시카리(Sicarii) 수비대는 뿔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현대 유대인의 끈질긴 저항 정신을 낳은 비극적이지만 위대한 선조로 화려하게 재현되었다.³³⁾ 그러나 후속 학자들은 야딘의 낭만적인 해석 이면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방법론적 한계와 이데올로기적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하기 시작했다.³⁴⁾ 가장 큰 비판은 그가 요세푸스의 문헌 기록을 입증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었다는 점이다. 그는 발굴된 모호한 고고학적 자료들을 철저히 문헌의 서사에 끼워 맞추어 선택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이 믿

32) Yadin,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 pp.87-113.

33) Yadin,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 p.312.

34)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50-78; Cohen, "Masada: Literary Tradition, Archaeological Remains, and the Credibility of Josephus", pp.385-393.

고 싶은 대로 결론을 도출하는 전형적인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의 오류를 범했다. 사회학자 나흐만 벤-예후다(Nachman Ben-Yehuda)의 신랄한 지적에 따르면, 야딘이 대중에게 발표한 발굴 보고서는 중립적인 과학적 고고학 문서가 아니라,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과 너무도 깊이 얽혀버린 하나의 거대한 ‘서사적 구성물(narrative construct)’에 불과했다.³⁵⁾

야딘의 대대적인 발굴이 거둔 엄청난 대중적 성공은, 당시 이스라엘이 국가 재건설과 새로운 민족 신화 형성에 사활을 걸고 몰두하던 시대적 분위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마사다는 그 정치적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였다. 황량한 유대 광야에 고립되어 압도적이고 극적인 지형을 지녔으면서도, 동시에 대규모 인파의 접근이 용이한 이 폐허는 국가 차원의 엄숙한 의례를 거행하기 위한 천혜의 야외 극장과도 같았다. 발굴 작업이 완료된 이후, 마사다는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애국적 순례의 최고 성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스라엘 국방군(IDF)의 정예 부대들은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 이 가파른 산을 등반하여 정상에서 군사 선서식을 거행했으며, “마사다는 다시는 함락되지

35)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11-15. 요세푸스의 실제 기록에 따르면 마사다를 점거한 시카리파는 영웅적인 독립투사라기보다는 극단주의적 테러리스트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로마군과 적극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엔게디(Ein Gedi) 등지에서 무고한 동족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등 부정적인 행적을 남겼음을 지적했다; Cohen, “Masada: Literary Tradition, Archaeological Remains, and the Credibility of Josephus”, pp.385-405. 요세푸스가 묘사한 마사다의 ‘집단 자결’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당시 고대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패배한 수비대의 최후를 묘사할 때 흔히 쓰이던 수사학적 관습(topos)을 차용한 것임을 고전 문헌들과 비교하여 증명했다;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187-200. 특히 이가엘 야딘의 발굴이 어떻게 ‘마사다 신화’를 완성했는지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D. K. Judd, “Suicide at Masada and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BYU Studies Quarterly* 36, no. 3 (1996), pp.377-392. 시카리파의 자결이 단순한 맹목적 광기가 아니라 당대의 신학적/철학적 세계관 속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않을 것이다(Masada lo tipol shenit)”라는 비장한 구호를 외치며 조국 수호의 결의를 다졌다.³⁶⁾ 공교육 교과서, 국가 공인 관광 안내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 세워진 기념비 등을 통해 마사다 서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스라엘 정체성의 굳건한 핵심으로 뿌리내렸다. 이러한 신화적 재전유는 야딘의 발굴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20세기 초반, 베를 카츠넬손(Berl Katznelson)과 이츠하크 람단(Yitzhak Lamdan) 등 시온주의를 이끌던 지식인 사상가들은 역사 속에서 잊혔던 시카리파를 맹목적인 광신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여, 불굴의 영적 저항을 실천한 상징적 존재로 선제적으로 재해석한 바 있었다.³⁷⁾ 특히 람단이

36)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p.126. 참혹한 ‘집단 자결(비극)’이라는 사건의 본질이, 초기 시온주의자들과 이스라엘 청년 운동(예: 슈마리아 구트만의 활동)을 거치며 어떻게 “다시는 마사다를 잃지 않겠다”는 ‘군사적 저항의 상징’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했다; Schwartz, Zerubavel, & Barnett, “The Recovery of Masada: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pp.147-164; A. Ben-Amos and I. Ben-Ari, “Resonance and Dissonance: The ‘Masada Myth’ in the Israeli Educational System”, in *The Shaping of Israeli Identity: Myth, Memory and Trauma*, ed. R. Wistrich and D. Ohana (London: Frank Cass, 1995), pp.102-122; D. Urian, “The Masada Myth in Israeli Theatre”, *Assaph: Studies in the Theatre* 14 (1998), pp.75-90.

37) Shapira, *Land and Power: The Zionist Resort to Force, 1881-1948*, p.112. 2,000년간 이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수동적인 죽음(학살에 순응하는 태도)’을 혐오하고, 손에 무기를 들고 최후까지 항전하다 명예롭게 죽는 ‘능동적이고 저항적인 죽음’을 찬양하기 시작한 시대적 분위기를 증명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유대인(Sabra)’ 세대에게, 굴복 대신 자결을 택한 마사다의 수비대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궁극의 군사적 롤모델’이자 이데올로기적 자양분이었음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했다; A. Shapira, “The Maccabees and Masada: Origins of a Myth”, *The Jerusalem Quarterly* 52 (1989), pp.12-14; Almog, *The Sabra: The Creation of the New Jew*, pp.254-256;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pp.114-119, 127-152;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 147-153, 165-170; D. G. Roskies, *Against the Apocalypse: Responses to Catastrophe in Modern Jewish Culture*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9), pp.133-135.

1927년에 발표한 서사시 『마사다(Masada)』는 문학의 힘을 빌려 이 황량한 고대 유적을 단순한 역사적 폐허가 아닌, 다가올 국가의 희망을 상징하는 ‘국민적 알레고리’로 완벽하게 전환시켰다.³⁸⁾ 그의 불타는 지구 속에서 마사다는 유대 민족이 영원한 유배와 파멸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성스러운 보루로 강렬하게 묘사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고대의 마사다 이야기를 현대의 시온주의 이데올로기와 빈틈없이 결합시키는 과정은 겉으로는 강력해 보였으나 내적으로는 몹시 불안정한 역사적 합성물이었다. 이러한 신화화 과정은 수비대의 영웅주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민족의 핏줄이 이어진다는 역사적 연속성만을 극도로 부각시켰다. 반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시카리파의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역사적 정체성, 그들이 생존을 위해 무고한 유대인 동포들에게 자행했던 끔찍한 폭력, 그리고 ‘집단 자살’이라는 행위가 가지는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깊은 모호성은 국가적 대의라는 명분 아래 의도적으로 철저히 무시되거나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기관과 대중이 합심하여 쌓아 올린 이 현대의 마사다 신화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역사적 성찰이나 진실 규명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바를 투영해 낸 강렬한 ‘이데올로기의 거울’에 가까웠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분위기가 성숙해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비판적 학자들이 이스라엘 공공 담론 속에서 마사다 서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정면으로 조명하고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은 앞서 언급

38) Y. Lamdan, *Masada*, trans. Dov Sadan (Jerusalem: Tarbut, 1927), passim;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pp.114-119; Roskies, *Against the Apocalypse: Responses to Catastrophe in Modern Jewish Culture*, pp.133-135; Urian, “The Masada Myth in Israeli Theatre”, pp.77-80; Shapira, “The Maccabees and Masada: Origins of a Myth”, p.13.

한 사회학자 나흐만 벤-예후다였다. 그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마사다에 대한 국가적, 고고학적 해석이 객관적인 경험적 증거에서도 출된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민족주의적 이념에 의해 사전에 재단되고 형성되었다고 과감히 주장했다.³⁹⁾ 벤-예후다는 야딘의 방대한 발굴 기록, 당대의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정부의 홍보 자료 등을 치밀하게 종합 분석하여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즉,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충하는 고고학적 발견들은 무조건 영웅 서사를 보강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억지 해석되었고, 시카리파의 잔혹성이나 비겁함을 암시하는 불편한 진실들은 발굴 보고서에서 교묘하게 배제되거나 철저한 침묵 속에 묻혔다는 것이다.⁴⁰⁾ 나아가 벤-예후다는 마사다 정상에서 거행된 화려한 국가 의례들이 고대의 진실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군사주의적 이념을 고대의 돌무더기라는 연극 무대 위에 투영한 일종의 ‘정치적 서사극’으로 작동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의 관점에서 이는 사회적 기억 그 자체가 순수한 역사적 탐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선전 도구이자 의도적인 연출로 전략해 버린 뼈아픈 사례였다. 물론 그는 유대 역사에서 마사다라는 공간이 가지는 실재적 중요성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장소의 의미가 어떤 권력의 역학 속에서 구성되고 대중에게 전파되었는지를 집요하게 문제 삼은 것이다.⁴¹⁾

기억 연구의 권위자인 야엘 제루바벨(Yael Zerubavel) 또한 이 예리한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회의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면서, 국가가

39)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3.

40)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23-24.

41)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58.

과거의 무수히 많은 사실 중 특정 역사적 사건만을 취사선택하여 전유하고, 그 서사에 방해가 되는 다른 파편적인 사건들은 체계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유대인의 단선적인 '연속성과 회복의 서사'를 인위적으로 구축해 왔다고 통찰했다.⁴²⁾ 제루바벨의 시각에서 마사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진 '기억 정치(politics of memory)'의 가장 전형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이다. 본래는 극심한 유대 분파주의의 산물이자 종교적 광기에 찬 극단적 순교의 서사였던 것이, 근현대 이스라엘에 이르러서는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순결한 '민족 통합의 신화'로 완벽하게 표백되어 재구성되었다는 것이다.⁴³⁾ 제루바벨은 이처럼 기억과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 넘치는 변증법적 관계에 깊이 주목하며, '현재의 문화적 요구와 위기감'이 '과거의 사실'을 입맛에 맞게 재형성하는 동력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사회학자 배리 슈바르츠(Barry Schwartz) 역시 유사한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 복잡한 주제에 접근했다. 그에게 있어 마사다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대중의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프레임워크 속에서 작동하는 '집합 기억'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 대상이다.⁴⁴⁾ 그는 대중이 마사다 서사에 열광하는 힘의 근원이 그것이 역사적 '사실(fact)'인지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고 청년들을 고무시키는 정서적이고 교육적인 '유용성(utility)'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특정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이롭게 가공된, 이른바 '활용 가능한 과거(usable past)'를 어떻게 창조하고 소비하는지를

42)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pp.96-129.

43)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p.101.

44) B. Schwartz,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1982), pp.374-402.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교보재라고 분석했다.⁴⁵⁾

결론적으로 마사다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수십 년간의 이 치열한 논쟁은, 객관적 과학을 표방하는 고고학이 대중의 집단지성 및 민족 정체성 구축과 어떤 복잡한 방식으로 뒤엉켜 상호작용하는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야딘의 찬란했던 성공 사례가 증명하듯, 학문의 영역과 국가적 상징의 영역이 경계 없이 뒤섞일 때, 과거의 진실은 너무나도 쉽게 이념적 도구화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물론 건국 초기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야딘이 침묵하는 고대 유적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의미를 찾아내려 한 시도 자체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특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역설적으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민족 신화 창조 프로젝트에 동원될 수 있는지를 역사에 남긴 가장 상징적인 반면교사가 되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학계의 해체적 비판들이 마사다라는 유적지 자체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효화하거나 훼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의미의 지평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복잡하게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최근 고고학과 역사학계의 진일보한 연구들은 마사다를 단순히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다층적인 의미와 해석이 양피지처럼 겹겹이 중첩된 매혹적인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겹쳐 쓴 양피지 사본)’로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⁴⁶⁾ 이 거대한 바위산 위에는 로마 군단의

45) Schwartz,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p.376.

46) Y.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pp.214-19. 제루바벨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억이 낡은 양피지(Palimpsest)와 같아서, 새로운 서사(예: 시온주의 영웅주의)를 쓰기 위해 과거의 불편한 서사(예: 시카리파의 내부 학살이나 디아스포라의 수치심)를 박박 긁어내지만, 그 밑바닥에는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흔적들이 유령처럼 여전히 남아 현재의 텍스트와 불협화음을 낸다고 통찰했다. 마사다는 단순히 고대 유적(Antiquity)이 아니라, 현대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수없이 덧칠해진 기

냉혹한 공성전의 핏자국, 현대 시온주의의 뜨거운 재탄생의 외침, 1세기 유대 분파주의자들의 처절한 종교적 열정,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국가 의례의 장엄한 무대라는 이질적이고도 다양한 기억들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조디 매그니스(Jodi Magness)와 같은 현대의 선도적인 고고학자들은, 집단 자살이라는 자극적이고 극적인 최후의 미학에만 과도하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한다. 대신 그들은 험준한 요새 위에서 수년간 버텼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기후를 극복한 놀라운 건축 및 수자원 기술, 그리고 요새 내부에 거주했던 다양한 계층의 실상에 집중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세밀한 해석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⁴⁷⁾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와 학계에서 마사다 논쟁은 결코 종결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스라엘 내부의 문화 담론 속에서 서로 다른 기억과 정체성이 충돌하는 팽팽한 긴장선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 현대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자신들이 점유한 땅의 역사적 정당성을 둘러싼 난제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마사다는 과거의 기억, 현재의 정치,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학문이 한데 만나 부딪히는 거대하고 상징적인 단층선(fault line)으로서의 목직한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역의 팔림프세스트 그 자체이며, 포스트 시온주의 학자들의 비판적 연구는 이 양피지의 끝면을 벗겨내어 그 아래 숨겨진 로마 제국의 냉혹한 현실이나 유대 내부의 참상을 다시 읽어내는 작업(Reading the erased texts)이라고 정의했다; A. Huyssen, *Present Pasts: Urban Palimpsests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p.1-7; Jodi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180-85.

47)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187-200; J. Magness, "Masada 1995: Discoveries at Camp F", *The Biblical Archaeologist* 59, no. 3 (1996), pp.158-166; Campbell, "Blind Faith: The Roman Siege of Masada", pp.38-43.

4. 로마의 단기 공성전과 지배의 미학: 최신 고고학이 복원한 제국의 억지력

현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마사다 포위전이라는 2,000년 전의 사건에 대한 학계의 전통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근본적인 뿌리부터 뒤흔들며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 세대의 시온주의 신화에 굳건히 내재되어 있던, 유대 수비대가 압도적인 로마군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버텼다는 장기적이고 영웅적인 저항 서사와는 대조적으로, 첨단 장비가 도출해 낸 최신 실증 자료들은 이 포위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 극도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순식간에 종결된 압도적인 단기간의 군사 작전이었음을 명백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본 논문이 서론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핵심 명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즉, 마사다는 결코 유대인의 고귀한 순교만을 상징하는 일방적인 무대가 아니며, 오히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가공할 공학적 우위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을 만천하에 각인시킨 차가운 제국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다.

2024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기 스티벨(Guy Stiebel)과 하이 아슈케나지(Hai Ashkenazi)가 주도한 다학제적 연구팀은 과거 야전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최첨단 기술들을 총동원했다. 이들은 고성능 드론 촬영, 지표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원격 감지 기술(Remote Sensing), 정밀한 공간 분석을 위한 GIS(지리정보시스템), 사진측량법, 그리고 마사다 지형 전체를 1센티미터 오차로 구현한 고해상도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였

다. 이러한 첨단 기법을 통해 연구팀은 요새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돌레 성벽, 로마 군단병들이 머물렀던 8개의 군단 진지, 감시탑, 그리고 최종 공격의 통로가 된 거대한 서쪽 공성 경사로 등 로마의 포위 시스템 구조 전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공량을 정확히 산출해 냈다. 연구팀의 정밀한 측정과 노동량 계산 결과는 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⁴⁸⁾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당시 이 작전에 투입된 약 6,000명에서 8,000명에 달하는 고도로 훈련된 로마 병사들은 그 방대한 돌레 성벽과 진지들을 놀랍게도 불과 11일에서 16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건설해 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벽 완공 이후 공격 경사로를 쌓아 올리고 최종적으로 요새를 점령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역시 수 주 이내에 불과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⁴⁹⁾ 이러한 최첨단 법의학 적 발견은 과거 야딘과 많은 역사학자들이 요세푸스의 과장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정사실화했던 ‘포위전이 최소 2년 이상 길게 지속되었다’는 오랜 학술적 가설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폐기하게 만드는 결정적 단서다.⁵⁰⁾ 발굴을 주도한 스티벨 교수는 이 단기전

48) Ashkenazi & Stiebel, et al., “The Roman Siege System of Masada: a 3D Computerized Analysis of a Conflict Landscape”, pp. 215-240; Roth, “The Length of the Siege of Masada”, pp. 87-110; Campbell, “Blind Faith: The Roman Siege of Masada”, pp. 38-43; G. D. Stiebel, “Masada”,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the Levant: c. 8000-332 BCE*, ed. M. L. Steiner & A. E. Killebr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849-863.

49) Ashkenazi & Stiebel, et al., “The Roman Siege System of Masada: a 3D Computerized Analysis of a Conflict Landscape”, p.237; Davies, “The Roman Siege Works at Masada”, pp.57-73; B. Isaac, *The Limits of Empire: The Roman Army in the East*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p.104-107; Roth, “The Length of the Siege of Masada”, pp.87-110.

50) Josephus, *De Bello Judaico*, 4.7.2;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38-41;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195-198.

가설을 지지하는 또 다른 강력한 정황 증거로 ‘주둔의 흔적’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는다. 만약 로마군이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사막 한가운데서 수년간 진을 쳤다면 마땅히 발견되어야 할 대규모의 생활 쓰레기, 방대한 음식물 찌꺼기, 수천 마리 짐승의 동물 배설물 퇴적층, 그리고 풍토병 등으로 사망한 병사들의 매장 유해 등이 마사다 주변의 로마 진지 유적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짧은 주둔 기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첨단 과학이 재구성해 낸 이 포위전의 진정한 핵심은 오랜 인내의 싸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인력을 동원한 신속한 축성, 극히 짧은 기간의 주둔, 그리고 저항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정적이고 파괴적인 단 한 번의 공격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변방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군사 행동을 넘어,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압도적인 군수 물류 능력과 반역자들에게 전하는 냉혹한 전략적 메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쇼케이스와도 같았다. 연구팀이 분석한 로마의 돌레 성벽은 높이가 약 2에서 2.5미터,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에 달했으며, 감시와 통제를 위한 15개의 거대한 감시탑이 마치 체스판의 말처럼 일정하고 전략적인 간격으로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다.⁵¹⁾ 이 거대한 장벽의 주된 목적은 물리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고립된 유대 수비대에게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시각적으로 각인시켜 도망이나 구조에 대한 모든 희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뺏속 깊은 심리적 공포와 절망을 조성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심리전의 도구였다.⁵²⁾ 이 잔혹하고도 효율적인

51) Ashkenazi, & Stiebel, et al., “The Roman Siege System of Masada: a 3D Computerized Analysis of a Conflict Landscape”, pp.223-225; Richmond, “The Roman Siege-Works of Masada, Israel”, pp.142-155; Davies, “The Roman Siege Works at Masada”, pp.57-73; Stiebel, “Masada”, pp.849-863.

52) M. Avi-Yonah and Y. Yadin, “Masada,” in *Encyclopaedia Judaica*, 2nd ed., vol. 13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pp.593-599; E. Schürer,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ge of Jesus Christ (175 B.C. -*

작전의 본질에 대해 스티벨 교수는 로마의 유명한 격언을 차용하여 단호하게 요약한다. “로마는 마사다에 와서, 보았고, 그리고 대단히 신속하고 잔인하게 정복했다”.⁵³⁾ 이러한 로마군의 기계적인 신속함은 제국이 세상 끝 가장 험준하고 외진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하찮은 저항마저도 어떠한 지체나 타협 없이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입증해 보이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행위였다. 일부 경제사학자들은 마사다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또 다른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마사다 요새가 고대 로마 제국 내에서 금보다 비싸게 거래될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던 특산물인 ‘엔게디(En Gedi)의 최고급 발삼(balsam) 재배지’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며, 로마가 이 귀중한 경제적, 전략적 자원 거점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눈엣가시 같던 마사다 수비대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제거했을 것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분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건을 수년에 걸친 장기전으로 오해해 왔을까? 이는 전적으로 요세푸스의 수사학과 야딘의 민족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요세푸스와 그를 추종한 야딘의 영향을 깊게 받은 전통적 해석은, 마사다의 처절한 포위전이 무려 2년에서 최대 3년에 걸쳐 길고 고통스럽게 진행되었다고 기정사실로 여겨왔다.⁵⁴⁾ 그러나 텍

A.D. 135), vol. 1, rev. and ed. G. Vermes and F. Millar (Edinburgh: T&T Clark, 1973), pp.512-515; M. Stern, “The Jewish War”, in *The Jewish People in the First Century*, vol. 1, ed. S. Safrai and M. Stern (Assen: Van Gorcum, 1974), pp.313-315.

53) Ben-Yehuda,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pp.147-152; Zerubavel,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pp.192-197; E. Pappé, “Post-Zionist Critique o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Part II: The Media”,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26, no. 3 (1997), pp.37-40.

54) Josephus, *De Bello Judaico*, 7.8.5.

스트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정작 요세푸스 본인은 자신의 저서 어디에서도 마사다 포위에 소요된 실제 기간에 대해 명확한 월일이나 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적이 없다.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건조한 전투의 사실 기록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거대한 힘과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대비시키는 ‘수사적 효과’의 극대화에 있었기 때문이다.⁵⁵⁾ 이러한 ‘장기 포위’라는 전제는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살아남은 반란군 무리가 마사다 요새로 도주했으며, 이후 로마군이 이 견고한 요새를 진압하는 데 수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는 후대 학자들의 빈약한 가정과 상상력에서 비롯된 오류였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지표면 아래의 진실을 통해 이러한 과거의 추정을 단호히 반박한다.⁵⁶⁾ 앞서 언급한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건축 속도와 진지 내 유물 잔존량의 절대적 부족을 명백히 보여주는 고고학적 교차 증거들은 장기전이라는 낡은 가정을 산산조각 낸다. 초기 발굴자 야딘의 1차 자료부터 에후드 네제르(Ehud Netzer)의 건축학적 분석,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티벨 연구팀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로마의 거대한 토목 공사는 불과 수 주 이내에 기계처럼 마무리되었고 요새 포위 및 함락 역시 그와 동시에 끝난 것으로 강력히 시사된다.⁵⁷⁾

55) Josephus, *De Bello Judaico*, 7.8.6.

56) Ashkenazi, & Stiebel, et al., “The Roman Siege System of Masada: a 3D Computerized Analysis of a Conflict Landscape”, pp.219-221;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165-168; H. M. Cotton and W. Eck, “Josephus’ Roman Army: Judea, Syria, and Alexandria”,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d. M. Popović (Leiden: Brill, 2011), pp.103-105; G. D. Stiebel, “Military Equipment from Masada”, *Masada VIII: The Yigael Yadin Excavations 1963-1965, Final Report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7), pp.1-3.

57)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175-180; Yadin,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 pp.201-203.

이처럼 극적으로 축소된 마사다 공성전의 타임라인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의 권력이 단순히 칼과 창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군사력으로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적의 저항 의지를 꺾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제, 즉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도 치명적으로 작동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만약 유대 수비대 시카리파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형을 활용해 로마의 대군을 상대로 실제로 수년간이나 방어하며 저항에 성공했다라면, 요세푸스가 창조한 불굴의 영웅적 저항 서사에는 훨씬 더 큰 낭만적 설득력과 사실적 무게감이 실렸을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이 밝혀낸 실제 역사는 잔혹할 만큼 달랐다. 마사다 요새는 로마군의 경이로운 토목 기술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사 작전 앞에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공략당하고 제압되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사막 한가운데서 공격 경사로, 4킬로미터의 두꺼운 성벽, 그리고 8개의 거대한 군영 진지를 단숨에 구축해 낸 로마군의 능력은 노동력, 천연자원, 그리고 군사 전략 전술에 대한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통제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소규모 반란 진압을 훌쩍 넘어서서,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에 대항하는 모든 피지배 민족에게 보내는 체계적이고 폭력적인 경고 메시지—“로마를 향한 어떠한 형태의 저항도 결국 철저히 무의미하다”—를 유다 광야의 메마른 땅 위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시킨 군사 퍼포먼스였다.

결국 마사다 내부에서 벌어진 960명의 끔찍한 대량 자살극은 현대 이스라엘 마르티르(순교) 서사의 눈물겨운 핵심이지만, 그 비극을 잉태한 진짜 배경은 다름 아닌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다가오는 로마 군단의 절대적이고 숨 막히는 위력이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대인들의 주체적인 ‘자발적 죽음’과, 로마 제국이 완성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제압’의 극적인 대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로마 승리의 이데올로기적 파급력을 역사 속에서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2024년에 발표된 이 파격적인 연구 결과는 학계에서 대체로 고고학적 혁신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일부 신중한 학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하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역사학도들이 모이는 레딧(Reddit) 역사 토론 게시판 등에서는 이 연구가 고대 로마군의 능력을 지나치게 현대화된 표준 노동 모델에 의존하여 계산했으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막 기후에서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높은 작업 효율성을 전제로 토공량을 계산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⁵⁸⁾ 또한 일부 보수적인 고고학 커뮤니티에서는 드론이나 3D 모델링과 같은 비파괴적인 원격 탐사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유물의 연대를 직접 측정하는 보다 정밀한 지층 분석과 탄소 연대 분석이 보완되어야만 단기전 가설을 확정 지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⁵⁹⁾ 여기에 더해, 저명한 고고학자 조디 매그네스(Jodi Magness)가 2019년에 발표한 방대한 연구 성과 또한 기존의 낭만적인 영웅적 서사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⁶⁰⁾ 그녀는 이스라엘 고고학

58)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195-200; Pappé, “Post-Zionist Critique o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Part II: The Media”, pp.37-43.

59) Silberman, *Between Past and Present: Archaeology, Ideology, and Nationalism in the Modern Middle East*, pp.87-98; Abu El-Haj, *Facts on the Ground: Archaeological Practice and Territorial Self-Fashioning in Israeli Society*, pp.130-140; A. H. Joffe, “Museums and History in Israel”, *Jewish Social Studies* 8, no. 1 (2001), pp.24-28.

60)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45-60; E. Netzer, *The Architecture of Herod, the Great Builder* (Tübingen: Mohr Siebeck, 2006), pp.17-41; G. Foerster, *Masada V: The Yigael Yadin Excavations 1963-1965, Final Reports: Art and Architectur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5), pp. 1-24; Yadin,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 pp.164-167.

의 1세대인 야딘이나 구트만 같은 선배 학자들이 문헌 사료인 요세푸스의 극적인 서술을 과학적 발굴보다 과도하게 신뢰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매그네스는 전쟁의 드라마틱한 자살 결말이라는 이념적 블랙홀에 빠지기보다는, 고립된 공간에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 구축했던 일상적 생활 운영 시스템, 메마른 산꼭대기에서 물을 모았던 경이로운 급수체계, 그리고 로마군 포위 전후의 세밀한 건축학적 변화 등 덜 자극적이지만 실증적인 ‘미시적 고고학 분석’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학계에 호소했다.⁶¹⁾ 요약하자면, 이 섹션은 최신 첨단 고고학 자료, 컴퓨터를 활용한 기술적 노동량 분석, 그리고 편견을 벗어난 사료 해석의 진전을 통해, 오랜 세월 신화화되었던 마사다 전투가 유대인의 장기적 저항전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로마 제국 군대의 짧고 치밀한 단기 군사작전이었음을 명백히 밝혔다. 이는 본 논문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즉, 마사다라는 공간에는 유대인의 숭고한 순교를 기리는 영적인 상징과, 로마 제국의 냉혹한 압도적 지배를 과시하는 물리적 상징이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그러나 모순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점—를 실증적인 데이터로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61) Magness,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p.60-75; Horsley, “The Sicarii: Ancient Jewish ‘Terrorists’”, pp.435-458; Josephus, *De Bello Judaico*, 4.7.2; L. I. Levine, *The Ancient Synagogue: The First Thousand Yea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58-61.

5. 결론: 상징의 교차점으로서 마사다

본 논문에서 다각도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사다 포위전은 대중적인 인식처럼 유대 민중의 낭만적이고 영웅적인 최후의 저항이라는 단일한 의미로만 귀결되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억압에 맞선 유대 수비대의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순교 서사와, 외딴 사막의 요새마저도 신속하게 제압해 낸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 공학적 위력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매우 복잡하고 이중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서기 73년 마사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물리적 붕괴를 넘어 수비대의 도덕적 붕괴를 상징했으며, 이를 통해 로마는 반란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제국의 도덕적 우위와 절대적인 권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대인들의 주체적인 자발적 죽음과, 로마군 공성병기에 의한 불가피한 제압이라는 극적인 대조는, 로마 제국이 쟁취한 승리의 이데올로기적 파급력을 역사 속에서 한층 더 극대화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역사가 흐르면서 마사다라는 물리적 공간은 고대의 정치적, 군사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후대의 시대적 필요와 문화적 요구에 따라 그 서사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재구성되어 왔다. 당대를 기록한 유일한 문헌 사료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는 시카리파의 최후를 비극적인 존경의 대상으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로마 황제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반란의 참혹한 교훈을 남기려는 이중적이고 선전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다. 이후 20세기 중반 이스라엘 건국기에 이르러 이가엘 야딘이 주도한 대대적인 발

굴 작업은 요세푸스의 고대 기록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뚜렷한 목적성을 띠었으며, 이를 통해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속성과 불굴의 영웅주의를 상징하는 시온주의적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강력하게 재전유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포스트 시온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국가 주도의 집단 기억 형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벤-예후다와 제루바벨 등은 국가 담론이 마사다의 역사적 복잡성이나 시카리파 내부의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오직 순수한 저항의 상징만을 선별적으로 취합하여 신화를 구축했음을 폭로했다. 더 나아가, 2024년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팀의 첨단 3D 모델링 분석 결과는 6,000명 이상의 로마 병사가 단 11-16일 만에 포위벽을 완성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수년에 걸친 영웅적 장기전’이라는 기존 가설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이 최신 연구는 마사다가 길고 처절한 방어전의 무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고도로 기획된 단기 작전의 무대였음을 명백히 밝혀냈다.

궁극적으로 마사다는 특정한 시대의 단일한 진실만을 품고 있는 굳건한 바위가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엇갈린 해석과 이데올로기가 양피지처럼 겹겹이 덧칠해진 ‘다층적인 의미가 중첩된 장소’, 즉 팔림프세스트로 작동하고 있다. 이 메마른 사막의 고원 위에는 1세기 시카리 분파의 맹목적인 종교적 열정과 비극, 냉혹하고 철저했던 로마 군단의 공성전 흔적, 현대 시온주의가 낳은 민족적 영웅주의의 재탄생,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덧입힌 국가 의례가 연출된 정치적 극장이라는 상이한 기억들이 하나로 뒤엉켜 층위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마사다를 둘러싼 역사적, 고고학적 논쟁은 결코 종결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과거의 유적을 넘어 이스라엘 학계와 문화 담론 속에서 서로 다른 기억과 국가 정체성이 팽팽하게 맞붙는 긴장선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신화 창조의 열망과 차가운 실증적 재해석 사이의 끊임없는 균형점의 이동은, 마사다가 과거의 파편화된 기억, 현재의 정치적 요구, 그리고 진실을 향한 학문적 탐구가 격렬하게 만나는 상징적인 단층선(fault line)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이 장소는 고대의 파괴적인 정치-군사적 현실과 현대 사회의 치열한 상징성이 교차하는 영원한 지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사료

Josephus, *De Bello Judaico*,
Eusebius, *Historia Ecclesiastica*.

2차사료

- Abu El-Haj, N., *Facts on the Ground: Archaeological Practice and Territorial Self-Fashioning in Israeli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Almog, O., *The Sabra: The Creation of the New Jew*, trans. H. Watzm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 Arubas, B., & Goldfus, H., “The Masada Siege System: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Earthworks”, in *The Roman and Byzantine Army in the East*, ed. E. Dąbrowa, Kraków: Jagiellonian University, 1995.
- Ashkenazi, H., & Stiebel, G. D., et al., “The Roman Siege System of Masada: a 3D Computerized Analysis of a Conflict Landscape”, *Journal of Roman Archaeology* 37, no. 1 (2024).
- Avi-Yonah, M., & Yadin, Y., “Masada”, in *Encyclopaedia Judaica*, 2nd ed., vol. 13,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 Ben-Amos, A., & Ben-Ari, I., “Resonance and Dissonance: The ‘Masada Myth’ in the Israeli Educational System”, in *The Shaping of Israeli Identity: Myth, Memory and Trauma*, ed. R. Wistrich and D. Ohana, London: Frank Cass, 1995.
- Ben-Yehuda, N., *The Masada Myth: Collective Memory and Mythmaking in Israel*,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5.
- Ben-Yehuda, N., *Sacrificing Truth: Archaeology and the Myth of Masada*, Amherst: Humanity Books, 2002.
- Bilde, P., *Flavius Josephus between Jerusalem and Rome: His Life, his Works, and their Importance*, Sheffield: JSOT Press, 1988.
- Campbell, D. B., “Blind Faith: The Roman Siege of Masada”, *Ancient Warfare* 4, no. 2 (2010).

- Cohen, S. J. D., “Masada: Literary Tradition, Archaeological Remains, and the Credibility of Josephus”, *Journal of Jewish Studies* 33, no. 1-2 (1982).
- Cotton, H. M., and Eck, W., “Josephus’ Roman Army: Judea, Syria, and Alexandria”,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d. M. Popović, Leiden: Brill, 2011.
- Dąbrowa, E., *Legio X Fretensis: A Prosopographical Study of its Officers (I–III c. A.D.)*, Stuttgart: Franz Steiner, 1993.
- Davies, G., “The Roman Siege Works at Masada”, *Journal of Roman Studies* 101 (2011).
- Davies, P. R., *In Search of ‘Ancient Israel’*, Sheffield: JSOT Press, 1992.
- Droge, A. J. & Tabor, J. D., *A Noble Death: Suicide and Martyrdom Among Christians and Jews in Antiquity*,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2.
- Eckstein, A. M., “Josephus and the Mute Stones: The Siege of Masada”, *The Public Historian* 29, no. 1 (2007).
- Elon, A., *The Israelis: Founders and S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 Feldman, L. H., *Josephu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Foerster, G., *Masada V: The Yigael Yadin Excavations 1963–1965, Final Reports: Art and Architectur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5.
- Goodblatt, D., *Elements of Ancient Jewish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Goodman, M., *The Ruling Class of Judaea: The Origins of the Jewish Revolt against Rome, A.D. 66–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Halbwachs, M., *On Collective Memory*, ed. and trans. L.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Hengel, M., *The Zealots: Investigations into the Jewish Freedom Movement in the Period from Herod I until 70 A.D.*, trans. D. Smith, Edinburgh: T&T Clark, 1989.
- Hobsbawm, E., “Introduction: Inventing Traditions”, in *The Invention of Tradition*, ed. E. Hobsbawm & T. Rang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Horsley, R. A. & Hanson, J. S., *Bandits, Prophets, and Messiahs: Popular Movements at the Time of Jesu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5.
- Isaac, B., *The Limits of Empire: The Roman Army in the East*,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Joffe, A. H., "Museums and History in Israel", *Jewish Social Studies* 8, no. 1 (2001).
- Judd, D. K., "Suicide at Masada and in the World of the New Testament", *BYU Studies Quarterly* 36, no. 3 (1996).
- Kedar, B. Z., *Looking Twice at the Land of Israel: Aerial Photographs of 1917-1918 and 1987-91*, Jerusalem: Yad Izhak Ben-Zvi, 1991.
- Ladouceur, D. J., "Masada: A Consideration of the Literary Evidence", *Greek, Roman, and Byzantine Studies* 21, no. 3 (1980).
- Lamdan, Y., *Masada*, Tel Aviv: Hedim, 1927.
- Levine, L. I., *The Ancient Synagogue: The First Thousand Yea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Luttwak, E. N., *The Grand Strategy of the Roman Empire: From the First Century A.D. to the Thir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 Magness, J., "Masada 1995: Discoveries at Camp F", *The Biblical Archaeologist* 59, no. 3 (1996).
- Magness, J., *Masada: From Jewish Revolt to Modern Myt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 Mason, S., *A History of the Jewish War, A.D. 66-7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Mattern, S. P., *Rome and the Enemy: Imperial Strategy in the Princip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Meshorer, Y., *A Treasury of Jewish Coins: From the Persian Period to Bar Kochba*, Jerusalem: Yad Ben-Zvi Press, 2001.
- Netzer, E., *Masada III: The Yigael Yadin Excavations 1963-1965 Final Reports: The Buildings: Stratigraphy and Architecture*,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1.
- Nora, P.,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 (1989).
- Pappe, E., "Post-Zionist Critique o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Part II: The Media",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26, no. 3 (1997).

- Paul, G. M., "Urbs Capta: Sketch of an Ancient Literary Motif", *Classical Views* 26, no. 2 (1982).
- Price, J. J., *Jerusalem Under Siege: The Collapse of the Jewish State, 66-70 C.E.*, Leiden: Brill, 1992.
- Rajak, T.,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2nd ed., London: Duckworth, 2002.
- Richmond, I. A., "The Roman Siege-Works of Masada, Israel",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52 (1962).
- Roskies, D. G., *Against the Apocalypse: Responses to Catastrophe in Modern Jewish Culture*,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9.
- Roth, J., "The Length of the Siege of Masada", *Scripta Classica Israelica* 14 (1995).
- Schürer, E., *The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in the Age of Jesus Christ (175 B.C. - A.D. 135)*, vol. 1, rev. and ed. G. Vermes and F. Millar, Edinburgh: T&T Clark, 1973.
- Schwartz, B., Zerubavel, Y., & Bernice M. Barnett, B. M., "The Recovery of Masada: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The Sociological Quarterly* 27, no. 2 (1986).
- Schwartz, B.,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 61(1982).
- Schwartz, S., *Imperialism and Jewish Society: 200 B.C.E. to 640 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Segev, T., *The Seventh Million: The Israelis and the Holocaust*, trans. H. Watzman, New York: Hill and Wang, 1993.
- Shapira, A., *Land and Power: The Zionist Resort to Force, 1881-19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Shapira, A., "The Maccabees and Masada: Origins of a Myth", *The Jerusalem Quarterly* 52 (1989).
- Silberman, N. A., *Between Past and Present: Archaeology, Ideology, and Nationalism in the Modern Middle East*, New York: Henry Holt, 1989.
- Smith, M., *Palestinian Parties and Politics That Shaped the Old Test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 Spilsbury, P., *The Image of the Jew in Flavius Josephus' Paraphrase of the Bible*, Tübingen: Mohr Siebeck, 1998.

- Sterling, G. E., *Historiography and Self-Definition: Josephos, Luke-Acts, and Apologetic Historiography*, Leiden: Brill, 1992.
- Stern, M., “The Jewish War”, in *The Jewish People in the First Century*, vol. 1, ed. S. Safrai and M. Stern, Assen: Van Gorcum, 1974.
- Stiebel, G. D., “Military Equipment from Masada”, *Masada VIII: The Yigael Yadin Excavations 1963–1965, Final Reports*,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07.
- Stiebel, G. D., “Masada,” in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the Levant: c. 8000–332 BCE*, ed. M. L. Steiner and A. E. Killebr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Trigger, B. G., “Alternative Archaeologies: Nationalist, Colonialist, Imperialist”, *Man* 19, no. 3 (1984).
- Urian, D., “The Masada Myth in Israeli Theatre”, *Assaph: Studies in the Theatre* 14 (1998).
- Van Henten, J. W., *The Maccabean Martyrs as Saviours of the Jewish People: A Study of 2 and 4 Maccabees*, Leiden: Brill, 1997.
- Vidal-Naquet, P., *The Jews: History, Memory, and the Present*, trans. D. Am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Yadin, Y., *Masada: Herod’s Fortress and the Zealots’ Last Stand*,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66.
- Zerubavel, Y., *Recovered Roots: Collective Memory and the Making of Israeli National Tra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Zias, J., Segal, D., & Lernau, O., “The Human Skeletal Remains from the Northern Cave at Masada—A Second Look,” *Israel Exploration Journal* 48, no. 1/2 (1998).

<Abstract>

The Siege of Masada and the Roman Conquest: The Symbolic Aesthetics of Resistance and Domination

Kim, Sang-yeup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dual symbolism of the Siege of Masada (73 CE)—as both a beacon of heroic Jewish resistance and a showcase of overwhelming Roman imperial domination—and explores how its narrative has been continuously reconstructed throughout history. First, by examining Flavius Josephus' *The Jewish War*, the sole contemporary literary source, this paper reveals that the Masada narrative was a highly rhetorical and apologetic project designed to propagate Roman invincibility and critique Jewish extremism. Second, it trac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asada into the Zionist founding myth and collective memory of the nascent State of Israel, primarily through Yigael Yadin's archaeological excavations in the 1960s. This is followed by a review of the ideological deconstruction presented by post-Zionist scholars such as Nachman Ben-Yehuda. Third, incorporating recent archaeological findings from 2024 that utilized 3D modeling and remote sensing technology, the study empirically illuminates that the Roman siege was not a years-long heroic defense, but rather a rapid, calculated military operation with the siege wall completed in merely 11 to 16 days. In conclusion, this paper defines Masada not as a fixed historical entity, but

as a ‘palimpsest’ of multilayered meanings where ancient political–military realities, modern Israeli nationalist ideology, and the latest scientific positivism continuously intersect.

Key Words : Masada, Flavius Josephus, Collective Memory, Zionism, Yigael Yadin

논문투고일 : 2026.04.12. 심사완료일 : 2026.05.07. 게재확정일 : 2026.05.12.